

“추석까지 한달 간 생활현장 순찰 강화”

제주자치경찰, 비상 2단계 수준 특별치안활동 전개
1600여명 투입 올레길·해안가·오름·야간 중심 순찰

제주자치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달간 특별치안활동을 벌인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자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진행한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추석연휴까지 16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순찰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순찰은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을 비롯해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야간 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주시 6개, 서귀포시 6개 등 올레길 12개 코스를 중점 순찰 구간으로 정해 나홀로 탐방객의 안전을 살피는 한편 오조포구, 하도방파제, 용수리 해안, 황우치, 법환

포구, 일과리어촌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해안가 지역과 용눈이오름, 백악이오름, 아부오름, 다랑쉬오름, 저지오름 등 주요 오름에서도 이뤄진다. 야간에는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 동선이 겹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한다. 특히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생활권 주변에서 ‘보이는 자치경찰’ 활동을 강화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형 안전망도 강화한다.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 지역 안전활동 단체와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도내 민간경비업체 3곳과 협력해 야간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민간 드론 순찰대도 모집해 올레길 등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순찰을 확대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안전은 도민과 관광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느냐도 중요하다”며 “더 자주 보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치경찰 활동을 통해 불안요인을 하나씩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 어촌 살릴 정책 대안은

제주대 어촌·수산경영연구센터
이달부터 6년간 대응전략 연구

제주대학교가 어촌 소멸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을 고민한다.

제주대 어촌·수산경영연구센터(센터)는 이달부터 ‘소규모 어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어촌 소멸 대응 전략 연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다. 앞으로 6년간 20억 원가량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센터에 따르면 국내 어촌은 사실상 생존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어촌계원의 77.1%가 60세 이상일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기후 변화, 유가 급등 등으로 소규모 연근해 어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도 큰 위협이다.

센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어촌의 경제·문화적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석규 센터장(제주대 경영학과 교수)은 “현장 중심의 학제 간 융합 연구와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를 복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고개 숙인 벼이삭 3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농경지에서 어느새 고개숙인 발버 이삭이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대 지역의사제 도입 첫 수시 모집

이달 7~11일 사이 원서 접수
의예과 43명 수시 선발 계획

제주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지역의사제 도입 이후 이를 전형에 반영한 첫 수시 모집이다.

제주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2027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2509명)의 74% 이상인 1868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전형별로 보면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1026명) 비중이 40.9%로 가장 높다. 이어 학생부종합(760명, 30.3%), 실기·실적(82명, 3.3%) 순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의예과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신설이다. 의예과 정원(68명) 내 수시모집 인원이 지난해 22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지역의사 전형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두 전형에 모두 포함됐다. 단, 전형별 지원자격 등이 달라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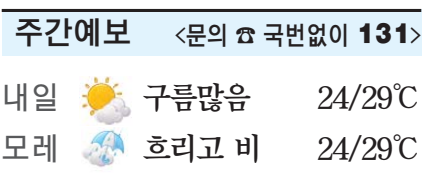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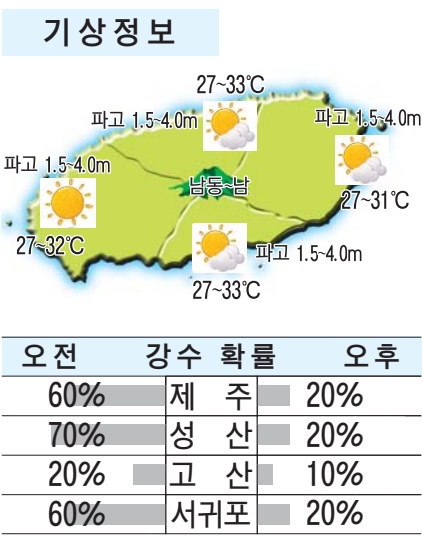
제주대는 기존 ‘자유전공’으로 모집하던 인원을 ‘글로벌자율학부’로 변경해 선발한다. 이 학부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11 이내여야 한다.

제주대 수시 모집 지원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평생학습자 전형과 재직자 전형은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제주대 입학 안내 누리집(https://ibsi.jejunu.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4일 금요일 음 7월 23일 (조금)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중문칠선녀축제 12~13일 천제연공원서 개최

드론 라이트 쇼·홀로그램 퍼포먼스 등 볼거리 풍성

‘제21회 중문칠선녀축제’가 오는 12~13일 이틀간 천제연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중문칠선녀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중문마을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칠선녀가 천제연폭포에서 노닐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1995년 처음 시작돼 지역의 명물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축제는 설화에 현대적인 볼거리를 더해 한층 다채롭게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12일에는 칠선녀 봉행제를 시작으로 록페스티벌, 초청 가수(박희수) 공연, 드론 라이트 쇼가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개회식에서는 메쉬 스크린을 활용한 홀로그램 기술로 칠선녀가 지상으로 강림하는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연출된다. 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운 칠선녀예술단의 춤사위가 이어져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지역 주민공

연과 노래자랑이 열리며, 칠선녀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축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서는 칠선녀 포토존, 칠선녀 굿즈 만들기, 마을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민들이 솜씨를 발휘한 ‘마을 작가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천제연폭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 사랑으로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